



보도 일시	2023. 3. 14.(화) 06:00 (화요일 석간)	배포 일시	2023. 3. 13.(월)
담당 부서	기후탄소정책실 대기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 김호은 (044-201-6880)
		담당자	사무관 김유란 (044-201-6881)

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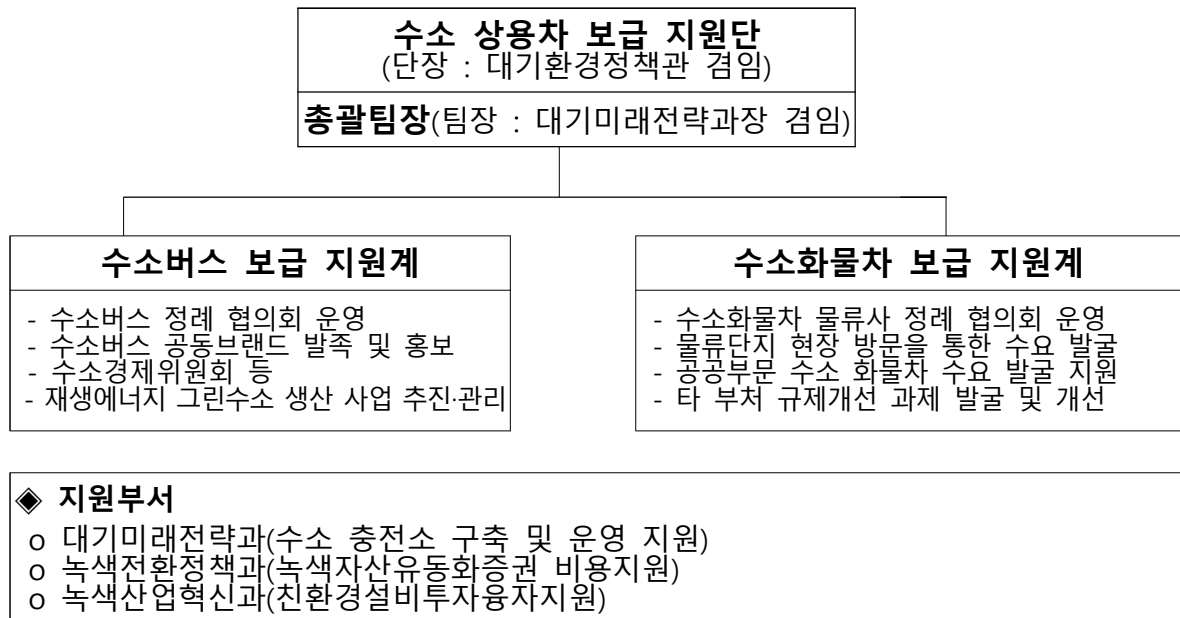
- 수소버스와 수소화물차의 보급을 위해 차종별 맞춤형 지원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수소 상용차(버스, 화물차 등)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3월 14일 출범한다.
 - 수소 상용차 지원단은 차종별 이해관계자와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, 수소 상용차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한다.
 -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겸임으로 지원단장을 맡으며 수소 버스 보급 지원계와 수소 화물차 보급 지원계로 조직이 구성된다.
 - 지원단은 차종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(전기·수소차)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.
 - 이 중 광역버스, 대형 화물차 등 대형 상용차는 전기차 대비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*로 보급될 계획이다.
 - * (주행거리) 대형 수소화물차 400km 이상, 시내버스 약 500km
(충전시간) 수소버스 15~20분 vs 전기버스 급속 1시간
 -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수소 버스 700대와 수소 화물차 100대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.

- 수소 상용차는 2020년 출시된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광역버스가 정식으로 출시되어 인천, 충청북도, 경상북도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.
-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11톤급 수소화물차는 경기, 대전 등 주요 물류 기지가 입지해 있는 지자체와 주요 물류사를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.
- 환경부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3월 22일 서울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차종별 정례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, 민간의 수요가 실제 보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- 수소 버스 보급을 위해 시내버스 운수사업자,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수소 화물차 보급을 위해 주요 물류사 및 화물차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등과 정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- 아울러 수소차 제조사, 상용차 충전소 사업자,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“수소 상용차의 보급은 가야 할 길이지만,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”라며,
- “수요가 보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계획. 끝

- ☐ (기본방향) 차종별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, 현장 중심 보급 지원 필요
- ☐ (명칭)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
- ☐ (운영기간) '23.3 ~ '23.12.
- ☐ (구성) 대기환경정책관 직속으로 총 2계, 5명 구성



- ☐ (운영) 현장중심 문제해결에 집중하여 실제 보급으로 연결되는 이해관계자(버스운수사, 화물물류사 + 지자체 등) 지원 추진